

2019학년도 11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국어 영역 •

1	③	2	④	3	②	4	③	5	④
6	④	7	④	8	②	9	⑤	10	③
11	⑤	12	①	13	③	14	②	15	③
16	⑤	17	⑤	18	③	19	①	20	①
21	④	22	④	23	②	24	⑤	25	④
26	⑤	27	②	28	②	29	⑤	30	②
31	④	32	④	33	⑤	34	①	35	③
36	⑤	37	①	38	③	39	③	40	⑤
41	①	42	①	43	④	44	③	45	③

[화법]

1. [출제의도] 말하기 전략 파악하기

2문단에서 청중에게 던지고 있는 ‘어려분, ~ 아시나요?’, ‘둘 다 ~ 보물일까요?’와 같은 질문은 모두 청중과 상호작용하기 위한 질문으로, 청중의 동의를 유도하기보다는 청중이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묻고 있으므로 해당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① 3문단에서 가지번호를 설명하면서 『조선왕조실록』의 예를 들어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2문단에서 화면에 사진을 보여주며 내용의 전달 효과를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5문단에서 ‘문화재를 ~ 바랍니다.’라고 청중이 문화재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당부하며, 청중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1문단에서 ‘이번 강연을 ~ 있습니다.’라고 하며 문화재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밝혀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 [출제의도] 청중의 듣기 활동 이해하기

‘학생 1’은 강연을 들으며 외국에서 소장 중인 문화재도 국보로 지정될 수 있을지 궁금해 하며 이를 홈페이지에서 찾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학생 3’은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를 누가 관리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강연자에게 질문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학생 1’은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강연을 들으며 든 의문점을 떠올리고 있을 뿐, 강연에서 알게 된 새로운 내용을 요약하며 듣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학생 2’는 강연을 들으며 이전의 태도를 반성하고 다짐하고 있을 뿐, 강연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을 추론하며 듣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학생 3’은 강연을 들으며 생긴 의문점을 떠올리며 강연을 듣고 있을 뿐, 강연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판단하며 듣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학생 2’와 ‘학생 3’은 자신이 갖고 있던 배경지식을 수정하며 듣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 [출제의도] 청중 반응의 적절성 판단하기

‘자료’에서 『동의보감』의 수량이 25권 25책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량이 25권이라고 하더라도 3문단에서 ‘여러 권이 묶인 책’의 경우 ‘수량과 상관없이 한 개의 지정번호가 붙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동의보감』 25권 25책 모두 각각 다른 국보 지정번호를 부여받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자료’에서 『동의보감』이 보물 제1085-1호로 지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3문단에서 ‘국보로 승격되면’ ‘그 보물의 지정번호는 결번으로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4문단에서 ‘지정번호는 부여하되,’ ‘공개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자료’와 3문단을 통해 『동의보감』보다 『조선왕조실록』의 국보

지정번호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4문단에서 ‘문화재의 지정번호는 ~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자료’에서 『동의보감』의 지정번호에 ‘제319-1호’라는 가지번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3문단에서 ‘서책의 ~ 합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화법·작문]

4.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 파악하기

(가)에는 이전에 건의가 수용되지 않았던 경험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가)의 3문단에서 ‘두뇌 스포츠 ~ 기대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 뒤 건의를 받아들일 때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의 1문단에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을 하며, ‘저희는 바둑 동아리 학생들입니다’라고 건의 주체를 밝혀 예상 독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의 1문단에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라고 건의 내용을 직접 제시하여 건의하는 바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의 4문단에서 ‘두뇌 스포츠 경기를 ~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건의를 받아들일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 해소될 것입니다.’라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5. [출제의도] 고쳐 쓰기 계획의 적절성 판단하기

(나)에서 ‘학생 2’가 ‘두뇌 스포츠가 상대를 존중하는 스포츠맨십을 길러 준다는 내용에 대한 근거를 제시’ 하라고 말했다고, ‘학생 3’이 ‘그런 내용을 언급한 두뇌 스포츠 선수의 말을 인용’ 하라고 말하자, ‘학생 1’이 이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바둑 기사 △△△ 9단의 말은 상대를 존중하는 스포츠맨십을 길러 주는 내용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나)에서 ‘학생 2’가 ‘예상 독자에게 두뇌 스포츠라는 말이 ~ 둘째 문단에 넣어주자.’라고 하고 있고, ‘학생 1’이 이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에서 ‘학생 2’가 ‘2016년 전국체육대회부터 바둑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는 기사’를 넣자고 하고 있고 ‘학생 1’이 ‘국제 스포츠 경기 대회 관련 정보도 찾아서 반영’ 하라고 하고 있으며 ‘학생 3’이 동의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에서 ‘학생 3’이 ‘그런데 넷째 문단에서 ~ 좀 이상한 것 같아.’라고 하고 있고 ‘학생 2’도 ‘두뇌 스포츠는 보통 ~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라고 하고 있으며 ‘학생 1’이 이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나)에서 ‘학생 3’의 ‘넷째 문단에 두뇌 스포츠 경기를 ~ 정말 가능할까?’라는 의문에 ‘학생 2’가 ‘안 그래도 ~ 가능하다고 하셨어.’라고 대답하고 있고, ‘학생 1’이 ‘체육관 사용이 가능한 시간을 반영해서 글을 수정할게.’라고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6.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C]에서 ‘학생 3’이 ‘넷째 문단에 두뇌 스포츠 경기를 ~ 정말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하자, ‘학생 1’이 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포츠 축제 담당 선생님께서 어쨌든 보’라는 제안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① [A]에서 ‘국내의 여러 ~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자.’라는 ‘학생 3’의 의견에 ‘학생 2’가 ‘우리가 수집한 ~ 넣으면 좋겠어.’라고 동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B]에서 ‘학생 2’는 ‘학생 1’의 말을 재진술하지 않고 있고 ‘하지만 두뇌 스포츠는 ~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라고 하여 ‘학생 1’의 의견에 공감

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B]에서 ‘학생 1’은 ‘학생 2’의 ‘하지만 두뇌 스포츠는 보통 ~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라는 의견을 수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C]에서 ‘학생 2’와 ‘학생 3’은 대립된 주장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7. [출제의도] 조건에 따라 글쓰기

‘두뇌 스포츠를 스포츠 축제 경기 종목에 꼭 포함시켜’ 달라고 하여 건의를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일등 공신’이라는 비유적 표현도 활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① ‘두뇌스포츠를 스포츠 축제 경기 종목으로 채택’하여 달라고 하여 건의를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신선놀음’, ‘바둑이 선물하는 시원한 한 줄기 여유’와 같은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만, 건의를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열정이 불꽃이 되어’와 같은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만, 건의를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두뇌 스포츠를 스포츠 축제 경기 종목에 포함시켜’ 달라고 하여 건의를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작문]

8. [출제의도] 작문 맥락 파악하기

(가)는 온라인상의 거짓 정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다룬 신문 기사이다. (나)의 학생은 (가)를 읽은 후, (가)에 나타난 문제 상황을 자신의 주변인 학교 홈페이지 ‘대나무숲’ 게시판에서 찾아, (나)를 통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9.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파악하기

㉠과 ㉡를 통해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게시판 관리가 소홀하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나)의 2문단에서 거짓 정보가 학생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2에서 거짓 정보가 학생들에게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금전적, 신체적 피해도 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생산하는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는 거짓 정보로 인해 이웃 학교 학생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사례이므로 적절하다. ④ ㉠-1에서 거짓 정보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학생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에서 ‘교차 검증하기’를 통해 학생들에게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0. [출제의도] 조건에 따라 규칙 수정하기

㉠의 ㉡는 게시물이 거짓 정보라는 것을 알리는 내용을 댓글로 작성하여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물이 거짓 정보임을 알리는 글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여 ‘대나무숲’ 게시판 이용자가 모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 규칙 제2조 1항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문법]

11. [출제의도] 한글맞춤법 이해하기

1문단에서 일반적인 활용 규칙에서 어긋나는 경우에는 표음주의를 채택함을 알 수 있다. ㉔은 이에 해당하는 예로서, 어간에 어미 '-아'가 붙을 때 '갈라'와 같이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지 않는 표음주의 표기를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㉔인 '먹고'는 형태소 '먹-'과 '-고'가 합쳐진 것이고, 기본형 '먹다'는 형태소 '먹-'과 '-다'가 합쳐진 것이다. 따라서 '먹고'와 '먹다'는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은 표음주의 표기를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㉔인 '좋아'는 어간인 '좋-'과 어미인 '-아'의 형태를 밝혀 적고 있는 표음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㉔인 '사라지다'는 '살다'와 '지다'가 연결어미 '-아'에 의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된 합성어로, 앞말이 본뜻에서 멀어져서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표음주의 표기를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㉔인 '쉽다'는 어간에 어미 '-고'가 붙을 때는 '쉽고'와 같이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은 표음주의 표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간에 어미 '-으니'가 붙을 때는 '쉬우니'와 같이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지 않는 표음주의 표기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2. [출제의도] 중세국어의 표기 원칙 이해하기

㉔인 '노피'의 경우는 '높-'과 '-이'가 결합할 때 '높-'의 끝소리인 'ㅍ'이 '-이'의 첫소리로 옮겨 적는 이어적기를 하고 있는 예이다. 그러나 ㉔인 '높히'의 경우는 '높이'에서 '교'를 'ㅂ'과 'ㅎ'으로 나누어 표기하는 재음소화 표기에 해당하는 예이므로 이를 거듭 적기라고 한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㉔인 '브레'는 체언 '물'에 조사 '에'가 붙은 것으로, '물'의 끝소리인 'ㄹ'이 '에'의 첫소리로 옮겨 적은 이어적기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③ ㉔인 '사물이니'는 체언 '사물'과 조사 '이니'가 결합할 때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은 끊어적기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④ ㉔인 '도적글'은 '도적'의 끝소리인 'ㄱ'을 '을'의 첫소리로도 다시 적는 거듭적기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⑤ ㉔인 '붉은'은 어간 '붉-'과 어미 '-은'의 형태를 밝혀 적은 끊어적기에 해당하고, ㉔인 '드러'는 어간 '들-'과 어미 '-어'가 결합할 때, '들-'의 끝소리 'ㄹ'이 '-어'의 첫소리로 옮겨 적은 이어적기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13. [출제의도] 높임표현 이해하기

<보기 2>에서 조사 '께서'는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고, '가셨다'는 '가-+-시-+-았-+-다'로 분석할 수 있는데, 선어말 어미 '-시-'가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또한 '모시다'라는 특수 어휘를 통해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을 사용하고 있다.

14. [출제의도] 피동표현 이해하기

'만지다'의 경우는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붙여서 짧은 피동표현을 만들지 못하는 동사이므로 적절하다.

① 동사의 어근에 피동 접미사 '-기-'를 붙여 '남짓 줄이 물고기에 의해 끊겼다.'와 같이 짧은 피동을 만들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동사의 어근에 피동 접미사 '-이-'를 붙여 '동생의 이름이 민수에 의해 불렸다.'와 같이 짧은 피동을 만들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동사의 어근에 피동 접미사 '-히-'를 붙여 '도토리가 다람쥐에 의해 땅에 묻혔다.'와 같이 짧은 피동을 만들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동사의 어근에 피동 접미사 '-기-'를 붙여 '음식이 요리사에 의해 접시가 담겼다.'와 같이 짧은 피동을 만들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5. [출제의도] 사전 활용하기

설명을 통해 활용정보에는 구개음화가 일어날 때의 발음이 제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발'의 경우 활용정보인 '발이[바치]'를 통해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낮'의 경우, 활용정보인 '낮이[나치]'는 연음될 때의 발음으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설명을 통해 발음정보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체언의 발음이 제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낮'의 경우, 발음정보인 [나]를 통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 진술은 적절하다. ② 설명을 통해 발음정보에는 자음군 단축화가 일어나는 체언의 발음이 제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흙'의 경우, 발음정보인 [혹]를 통해 자음군 단축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 진술은 적절하다. ③ 설명을 통해 활용정보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축화가 일어나는 체언이 연음될 때의 발음이 제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발'과 '흙'의 경우, 활용정보인 '발음[바들]'과 '흙이[홀기]'를 통해 연음될 때 발음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 진술은 적절하다. ④ 설명을 통해 활용정보에는 비음화가 일어나는 경우의 발음이 제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낮', '발', '흙'의 경우, 활용정보인 '낮만[난만]', '발만[반만]', '흙만[홍만]'을 통해 비음화가 일어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과학 · 기술]

[16 ~ 20] <출전> 김래현 외, 「지역난방 기초공학 및 에너지기술 실무교육」

16.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5문단에서 '기존의 열 수송 방식과 달리 '보내는 물의 온도를 현저히 낮출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상변화란 '주변의 온도나 압력 변화에 의해 어떤 물질이 이전과 다른 상태로 변하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1문단에서 '열병합 발전소에서 전기 생산을 위해 사용된 열을 회수하여 인근 지역의 난방에 활용'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5문단에서 '물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없으므로 캡슐의 양을 증가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5문단에서 '상변화 물질을 활용한 열 수송 방식을 사용하면 '열 수송의 효율성이 개선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17. [출제의도] 핵심 개념의 특성 파악하기

2문단에서 '그런데 비커 속 열음이 ~ 사용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잠열은 물질마다 그 크기가 다르'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2문단에서 '물질의 온도 변화로 나타나지 않는' 열이 잠열이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2문단에서 '숨어 있는 열이라는 뜻이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2문단에서 '잠열은 물질마다 ~ 잠열을 방출한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18. [출제의도] 도식을 통해 글의 내용 파악하기

3문단에서 '액체가 된 상변화 물질'이 '온수 공급관을 통해' 이동한다고 했고 4문단에서 '캡슐 속 상변화 물질은 액체에서 고체로 상변화하면서 잠열을 방출'한 후 '온수 회수관을 통해 다시 발전소로 회수'된다고 했으므로 ㉔과 ㉕ 속의 상변화 물질은 각각 액체와 고체로 상태가 서로 다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에서 '물이 데워져 물의 온도가 상변화 물질의 녹는점 이상'이 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3문

단에서 온수 공급관을 통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변화 물질이 고체로 상변화되지 않'도록 '물의 온도는 상변화 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유지'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4문단에서 '이동해 온 물의 현열과 캡슐 속 상변화 물질의 현열, 그리고 상변화 물질의 잠열'이 모두 공동주택의 찬물을 데우는 데 사용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4문단에서 '상변화 물질 캡슐이 든 물은 온수 회수관을 통해 다시 발전소로 회수되어 재사용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19.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보기 1>에서 상변화 물질의 녹는점이 15℃라고 했는데 3문단에서 온도가 '상변화 물질의 녹는점 이상'이 되면 상변화 물질은 액체로 상변화한다고 했으므로 <보기 2>에서 벽의 온도가 15℃보다 높아지면 이 물질은 고체에서 액체로 상변화하게 될 것이다. 또, 2문단에서 물질이 '고체에서 액체가' 될 때에는 잠열을 흡수한다고 했고, 물의 상변화 예에서 '얼음이 모두 ~ 계속 0℃를 유지'한다고 했으므로 온도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20. [출제의도] 문맥상 의미 파악하기

㉔는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다른 곳으로 가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는 '시간이나 세월이 지나가게 하다'의 의미로, ③은 '결혼을 시키다'의 의미로, ④는 '상대편에게 자신의 마음가짐을 느끼어 알도록 표현하다'의 의미로, ⑤는 '놓아주어 떠나게 하다'의 의미로 각각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현대소설]

[21 ~ 24] <출전> 채만식, 「맹순사」

21.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이해하기

맹순사의 시각에서 '술대접을 받기는 ~ 얻다 준 것'과 '양복벌이나 ~ 찬거리나 조금씩 얻어먹'는 사건을 서술하여 '아무나 예사로 하는 일'이요, 하여도 죄 될 것이 없다' 여기는 맹순사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2. [출제의도] 발화의 내용 이해하기

㉔은 맹순사가 사람들이 안심한 얼굴로 대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하며 자신이 저지른 행악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㉔은 서번이 알고 있는 가네모도상이 틀어 굶어 먹구두, 되려 승할 해서 부장이 된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맹순사가 말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㉔은 맹순사가 돈이 삼 원밖에 없는 지갑을 꺼내는 채하면서 공경가격 삼십이 원짜리 양복 가격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㉔은 맹순사가 못 이기는 체하며 자청해 주는 너물을 받는 것으로도 모자라 그럴싸한 사람을 찾아가서 돈을 요구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⑤ ㉔은 파출소에 들어서며 예상하지 못한 노마를 만나 놀란 맹순사가 말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23.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 파악하기

㉔에서는, 자신은 청백하다고 말하면서도 너물을 받았던 행동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맹순사의 심리를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㉔에는 여주모 내려갔던 기노시다상네가 이사해오며 재봉틀이 두 개나 된 것을 언급한 서번의 말에서 부러움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㉔에는 맹순사를 적의와 경멸의 눈초리로 흘겨보는 모습에서 맹순사를 적대시하는 행인들의 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㉔에는 '한때 잘들 해먹었으니 인제는 그 대갈음도 받아야겠지'라고 생각하며 한숨을 쉬 맹순사의 모습에서 착잡한 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

절하다. ⑤ ㉔에는 겉으로는 내색을 아니 하고 웃으며 속으로 '저런 것이 다 순사니, 수도모 받아 싸지.'라고 생각한 맹순사의 모습에서 노마에 대해 못마땅해하는 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4.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해방 전 맹순사가 우미관폐에 들어가 사람을 치다 붙잡힌 노마를 몇 차례 놓아 준 모습에서 도덕적 관념을 회복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대마직 국민복을 너물로 받은 맹순사가 다른 동간들과 달리 청백하다고 수차례 말하는 모습에서 부정적 인물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불한당질을 했음에도 죽거나 팔다리까지 부러지지 않고 서울루 와서 활개치고 잘 산다고 여기는 서본이의 말에서 혼란스러운 당대 사회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스스로 청백하였노라고 자신하던 맹순사가 술대접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니고 팔자를 고치는 수준에 올라야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모습에서 인물의 허위와 위선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해방 전 불쌍한 사람한테 못할 것도 많이 한 맹순사가 해방 후 다시 순사가 된 모습에서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해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인문]

[25 ~ 29] <출전> 박병철 「비트겐슈타인 철학으로의 초대」

25. [출제의도] 내용 파악하기

이 글은 2문단에서 명제가 사실과 대응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명제'의 진리값을 요소명제의 진리값을 통해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진리합수이론을 3, 4문단에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6. [출제의도] 사실적 정보 확인하기

5문단의 '무의미한 명제는 그 명제에 대응하는 사실이 없어서 참과 거짓을 가려낼 수 없는 명제이다. 그리고 의미를 결여한 명제는 그 명제에 대응하는 사실은 없지만'을 보면, 무의미한 명제와 의미를 결여한 명제는 둘 다 대응하는 사실이 없으므로 원자사실과 대응하는 요소명제가 무의미한 명제를 의미를 결여한 명제와 구분하는 기준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의 '그에 따르면 요소명제는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최소의 언어 단위로'를 보면, 요소명제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언어 단위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3문단의 '그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요소명제들로 구성된 명제를 '복합명제'라고 불렀는데'를 보면 두 개 이상의 요소명제가 결합하여 복합명제를 만들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3문단의 '그는 요소명제가 원자사실과 일치하면 '참(T)'이라는 진리값을,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F)'이라는 진리값을 갖는다고 보았으며'를 보면 원자사실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 요소명제의 진리값이 정해진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3문단의 '그에 의하면 요소명제의 진리가능성은 언제나 참과 거짓, 2개가 된다.'를 보면 요소명제의 진리값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언제나 2개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27. [출제의도] 내용 적용하기

<보기>의 [진리표 1]은 요소명제 p와 요소명제 q에 대해 진리연산이 적용된 복합명제 p∨q가 p와 q의 진리가능성이 TT, FT, TF, FF가 되고, p∨q의 진리조건이 TTTF가 되는 것을 나타낸 진리표이다. 그래서 3문단의 '그는 요소명제가 원자사실과 일치하면

'참(T)'이라는 진리값을,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F)'이라는 진리값을 갖는다고 보았으며'를 보면 진리값은 요소명제가 원자사실과 일치하는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복합명제의 진리값이 거짓일 때는 p와 q에 대응하는 원자사실이 없는 경우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4문단의 '진리연산의 결과는 복합명제가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조건을 말해주는 진리조건이 된다'라고 하였고, [진리표 1]의 진리조건은 TTTF이므로, 진리연산의 결과인 진리조건은 TTTF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5문단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복합명제를 진리표로 만들었을 때, 진리조건에 T와 F가 함께 표기되는 명제, 즉 사실과 비교함으로써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명제를 '의미 있는 명제'라고 불렀다'라고 하였고, [진리표 1]의 진리조건은 T와 F가 함께 표기되어 있으므로, [진리표 1]의 복합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보기>의 [진리표 1]의 진리조건은 TTTF로, p∨q의 진리값은 p와 q의 진리가능성이 TT일 때 참, FT일 때 참, TF일 때 참이므로 적절하다. ⑤ 3문단의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요소명제들로 구성된 명제를 복합명제라고 불렀는데 ~ 결국 복합명제가 몇 개의 요소명제들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요소명제의 수를 n이라고 보면, 복합명제의 진리가능성은 2^n개가 된다'를 보면, 요소명제가 3개이면 복합명제의 진리가능성은 2^3개가 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8. [출제의도]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보기>의 [진리표 2]는 원자사실과 대응하는 요소명제가 2개인 [진리표 1]과 달리 요소명제가 대응하는 원자사실이 없지만, 진리연산과 상관없이 진리조건이 TTTF로 표기된 '의미를 결여한 명제'의 진리표이다. 그래서 [진리표 1]과 달리 [진리표 2]는 '의미를 결여한 명제'를 진리표로 만든 것이겠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29. [출제의도] 사화에 적용하여 이해하기

5문단의 '사실과 비교함으로써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명제를 의미 있는 명제라고 불렀다. 그리고 ~ 무의미한 명제는 그 명제에 대응하는 사실이 없어서 참과 거짓을 가려낼 수 없는 명제이다.'를 보면 비트겐슈타인은 사실과 비교함으로써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명제를 '의미 있는 명제', 대응하는 사실이 없어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명제를 '무의미한 명제'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데아'가 육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인식되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사물의 본질적인 원형이라는 플라톤의 말인 <보기>의 ㉔는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에서 대응하는 사실이 없어,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무의미한 명제이다. 그러므로 이 진술은 적절하다.

[현대사]

[30~32] <출전> 신석경, '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정호승, 「백두산을 오르며」

30. [출제의도] 표현방식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의 '푸른 수레', '흰 안개', '푸른 봄', '흰 백매', '푸른 계절'에서, (나)의 '흰 자작나무', '흰 두견화'에서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1.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5연에서 '그들은', '우같이 흰 백매가 핀다'로서 이미 계절이 떠나간 이 빈 지구에 봄이 온다는 이야기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고 제각기 만나는 대로 심장을 앓았다'를 통해 '그들이' 민족의 운명이 회복된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

하지 않다.

① 2연의 '봄은 해방을, '봄'에 대한 '즐거움 이야기'는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에 대해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해방을 소망하는 민족 공동체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4연에서 '어떤 친구'가 '말하기를 봄은 어느 아득한 성과로 멀리 떠나버렸다'고 한 것에서 해방된 현실을 의미하는 '봄'이 멀리 떠나버린 현실에 체념하는 모습이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③ 5연에서 '봄은 어느 성과에서 다시 오지 않나'는 해방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한 것인데, 이를 '부절없이 소곤대'었다고 한 것은 실질적 노력 없이 이야기만 하는 모습을 드러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⑤ 5연의 '계절이 떠나간 이 빈 지구'는 봄이 없는 공간을 의미하여 이상적 공간의 회복을 이루지 못한 절망적 현실을 보여주므로 적절하다.

32. [출제의도] 시행의 의미 파악하기

[D]에서 운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을 뿐, 억압적 현실에 저항하는 화자의 행동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A]에서 화자가 '백두산에 도착하자' '내리기 시작했다'던 '눈'이 '함박눈'으로 '퍼붓는' 것으로 변한 것을 통해 화자를 둘러싼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이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② [B]에서 '우리들은 말없이 천지를 향해 길을 떠났다'를 통해 목적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③ [C]에서 '우리들은' '백두산이 되어갔다'를 통해 화자가 대상과 동화되어 가는 모습이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⑤ [E]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날들을 생각했다'를 통해 공동체적 삶에 대한 화자의 바람이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사회]

[33 ~ 37] <출전> 김일태 외 공역 「조직경제학 입문」

33. [출제의도] 사실적 정보 확인하기

이 글은 기업의 규모 변화를 거래비용을 통해 설명하고 있을 뿐 기업의 규모와 생산비용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과 4문단을 통해 거래비용의 종류에는 '시장거래비용'과 '조직내거래비용'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3문단에서 '이때 ~ 총거래비용이라고 하며'를 통해 총거래비용의 개념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3문단의 '거래비용이론에서는 기업은 ~ 고려하게 된다고 보았다.'를 통해 시장거래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1문단의 내용과 4문단에서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 부품을 자체 생산할 수 있고'를 통해 기업의 규모가 변화하는 이유를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4. [출제의도] 핵심 용어의 개념 이해하기

2문단에서 거래비용은 경제 주체들이 재화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고 하였는데, 제시된 상황에는 거래 상대방과 거래 과정이 드러나지 않아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제시된 상황은 2문단의 경제 주체가 거래 의사와 능력을 가진 상대방을 탐색하는 과정의 예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제시된 상황은 가격이나 교환조건을 상대방과 협상하는 과정의 예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제시된 상황은 계약을 하는 과정의 예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제시된 상황은 계약 후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의 예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5. [출제의도]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㉔에서 ㉔로 총거래비용이 줄어든 것은 시장거래비

용은 감소하고 조직내거래비용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4문단의 '이렇게 기업이 ~ 이 지점이 바로 기업의 최적규모라고 할 수 있다.'를 볼 때 내부 조직의 규모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① 4문단에서 '이렇게 기업이 ~ 조직내거래비용은 증가하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②에서 ⑤로 조직내거래비용이 증가했다면 시장에서 조달했던 부품의 일부를 자체 생산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4문단에서 '이렇게 기업이 부품을 자체 생산하여 ~ 시장거래비용은 감소'한다고 하였으므로 ③에서 ⑥로 시장거래비용이 감소했다면 기업이 내부 거래를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4문단에서 '총거래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까지 ~ 바로 기업의 최적규모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총거래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인 ③가 기업의 최적규모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①은 조직내거래만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4문단의 '기업이 다른 기업과의 시장거래를 통해 ~ 시장거래비용만 발생하게 될 것이다'를 통해 조직내거래만 이루어질 경우 시장거래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6. [출제의도] 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하기

5문단 '먼저, 인간은 ~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다.'에서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인간적 요인으로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D 기업과의 거래에 있어 E 기업이 완벽하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A 기업은 특정 기업을 선정하지 않고 다양한 기업을 통해 볼트를 조달하고 있다. 6문단에서 '자산특수성이란 ~ 높은 가치를 갖는 자산의 속성을 말한다'를 통해 A 기업이 조달하는 볼트는 자산특수성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B 기업은 핵심 부품을 C 기업을 통해서만 조달하고 있으므로 자산특수성이 높으며 장기간의 계약 기간을 명시한 것은 안정적인 생산과 조달을 위한 것이다. 이는 6문단의 '이때 자산특수성이 높으면 ~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 할 것이다.'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③ B 기업과 C 기업이 거래하는 핵심부품은 자산특수성이 높다. 6문단의 '자산특수성이 높으면 ~ 행동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를 통해 두 기업은 상대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을 염려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E 기업이 D 기업에 원재료의 품질 정보를 세부적으로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6문단의 '정보가 불확실한 거래 상황일수록 ~ 거래비용은 높아지게 된다'를 통해 거래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7.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둘 이상의 일을 한꺼번에 행함.'은 '병행'의 사전적 의미이다. 그러나 ㉠의 '이행'은 '실제로 행함.'이라는 사전적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고전 갈래 복합]

[38 ~ 41] <출전> 작자 미상, 「황제사」
이규보, 「봄의 단상」

38.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가)는 '물이 깊어 못 오던가', '산이 높아 못 오던가' 등에서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임과의 재회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고, (나)는 '부귀한 사람이 봄을 볼 때는 이러하리라', '슬프고 비탄에 찬 사람이 봄을 볼 때는 이러하리라' 등의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봄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나'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9. [출제의도] 의적 증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가)의 '물이 깊어 못 오던가', '산이 높아 못 오던가'를 보면 화자는 '물'이 깊고 '산'이 높다는 외부적 요인에서 임과의 재회가 늦어지는 이유를 찾고 있을 뿐, 화자가 임과 이별하게 된 이유는 작품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일조 낭군 ~ 소식조차 돈절하야'를 보면, 하루아침에 임과 이별하여 소식이 갑자기 끊긴 상황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자네 일정 ~ 아니 오더냐'를 보면 임이 오지 않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화자가 답답한 심정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병풍에 그린 ~ 울거든 오라는가'를 보면 '병풍에 그린 황제가 우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며, 그런 상황이 되어야만 임이 올 것인지 묻고 있으므로 임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너만 죽어 ~ 떠서 노자'를 보면 화자가 죽어서라도 다시 임과 재회하고 싶어 하는 마음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작품 이해의 적절성 파악하기

(나)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나'는 '닥쳐오는 상황을 ~ 움적어 가리니'라고 하고 있다. 이는 상황의 변화를 따르며 살겠다는 깨달음을 드러낸 것일 뿐, 이러한 깨달음이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로 확장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A에서 봄을 즐기느라 온화한 표정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나'가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은 B의 '나'의 생각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B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흡족해하는 '천자'의 모습을 추측하여 봄을 대하는 부귀한 사람의 태도를 생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B에서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은' '호방한 벼들'과 봄을 즐기고 있지만 '나그네'는 짐을 떠나 한스러운 마음인 것으로 보아 서로 임장이 대비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B에서 '천자',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 '부인', '나그네'가 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한 '나'의 생각들은, '보이는 경치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C의 깨달음으로 이어지므로 적절하다.

41.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하기

㉠의 '달'은 '임 계산 테'를 밝게 비추어 주어 자신도 일을 보게 해달라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의 '제비'는 '쌍쌍이 나는' 모습으로 보아 남편과 이별한 부인의 처지를 부각하는 소재이므로 적절하다.

[고전 소설]

[42 ~ 45] <출전> 작자 미상, 「송부인전」

42. [출제의도] 작품의 특징 파악하기

'젊은 죄인의 어머니더니 ~ 이 지경이 되었삽는테'라는 대화를 통해 송부인이 시택에서 쫓겨난 후 지금까지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3.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하기

왕시랑을 오해하고 서운하게 생각했던 송부인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일 뿐, 왕시랑이 명사관으로서 공과 사를 구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조만간에 하인이 이리를 지나가리라'에 왕진사 덕하인이 주막을 지나갈 것이라는 무녀의 예측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요망한 무녀를 ~ 어찌된 일이나?'에 송부인이 죄를 지은 것으로 생각하는 왕진사의 질책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다시

문고자 ~ 따로 분부하여'에 주변 상황을 의식하여 송부인에게 절문하기를 미루는 왕시랑의 모습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이 일은 알아보고 ~ 잡지 못하리니까?'에 범인을 잡아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는 왕시랑의 태도가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44. [출제의도] 의적 증거를 통해 작품 감상하기

'난들 어찌 알았으리오?'를 통해 왕시랑은 송부인을 만나기 전까지 송부인이 모함을 받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기에, 송부인의 누명을 풀어 주기 위해 입신양명을 이런 목적을 짐작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송부인이 왕시랑에게 '절에게 죄가 설령 있거든 ~ 누명을 씻어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나 '품에서 편지 봉투를 내어 얇은 앞에 던지'는 것에서 모함에 대한 오해를 풀려고 하는 적극적인 모습이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② 왕진사가 '네 복중에 있다는 자식에 대해서도 ~ 어찌된 일이나?'라고 송부인을 수취하는 것에서 여성의 정절을 중시하는 남성 중심 사회의 모습이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④ 녹제가 하인을 취하게 만들어 편지를 조작한 것에서 가족 외부의 인물이 주인공을 모함하려는 모습이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⑤ 송부인이 왕시랑에게 '시택에서 쫓겨났사오나 ~ 시택이 용납하리니까?'라고 말하는 것에서 송부인이 겪은 시련과 고난이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서사 내용 파악하기

⑥의 서간은 왕진사가 왕시랑에게 보낸 것을 녹제가 위조한 것이고, ⑦의 서간은 왕시랑이 왕진사에게 보낸 것을 녹제가 위조한 것이다. 따라서 ⑥의 서간과 ⑦의 서간은 모두 녹제가 위조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① ⑧의 서간은 왕진사가 왕시랑에게 보낸 것으로, 녹제에 의해 '집안은 무사하고 공직에 힘쓰라'라는 내용으로 조작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⑩의 서간은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⑨의 서간은 '왕시랑의 답장을 던지는 지라'를 통해 송부인에게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⑪의 서간은 송부인이 왕시랑에게 던진 것으로, '왕시랑이 상흔실백하여 ~ 것이 라 막측기단하여'에서 처음 보는 내용의 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